

충남 백제권 개발전략

박 서 호
(朴西浩)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 I. 머리글
- II. 생각틀
- III. 백제권 모습
- IV. 백제권 자리뒹과 할 일
- V. 생각꺼리

I. 머리글

이 글에서는 일반론의 성격을 갖는 고을살림의 생각틀을 짜보는 것과 백제권의 자리뒹에 대한 새로운 풀이를 하려고 한다.

이 글의 열거는 먼저 고을살림을 볼 틀을

규범적으로 짚는다. 이 틀 구성개념은 개발주체, 개발가치, 사람이 빠져나가는 고을을 보는 관점, 고을기능과 선택, 세계화, 지역화, 정보화, 생태화에 대한 시대흐름 등의 개발전략들이다. 이들에 대해 앞서 나온 개발이론들을 검토하면서 꾸려본다. 이런 규범적 잣대인 생각틀에 비추어 백제권 모습을 훑어 본다. 주요 항목은 크게 사람, 땅, 일, 사회복지, 정주체제로 나눠 백제권이 충남에서 차지한 자리가 어떤 가를 보고 각 군의 특성도 짧게 살핀다. 그런 속에서 백제권 및 각 군의 꺼리와 숨은 힘을 찾아 본다. 그런다음, 앞으로 백제권이 차지할 자리 및 뒹을 밝혀 본다. 앞날 백제권의 자리뒹을 헤아리는 데 충남, 나라, 더 나아가 동아시아, 그래서 누리에서 차지할 위치의 가치를 새겨 본다. 그런 테두리위에 펼 꿈으로서 각 군별 자리뒹을 따져 본다. 이에 대한 관점은 각 군의 특화기능을 살리는 쪽에서 본다. 이를 이를 전략들로서 백제권의 4개 군지역 공통으로 다루어야 할 방법들을 살피고 각 군별 특성을 살릴 사업들을 말해본다. 각 군별 개발사업들

은 앞서나온 여러 계획들에서 벌써 말해진 것들의 모듬이다. 끝으로 충남 4대권역 설정에 생각꺼리를 던지려고 한다.

II. 생각들

1. 고을살림 틀

1) 누가 할 것인가?

고을살림(지역개발)은 살림꾼(개발주체)을 일으켜 세워 그가 살림(개발)을 꾸려가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만큼 살림꾼을 세움이 고을살림에서 먼저 할일이다. 고을살림의 바램(개발목표)은 고을사람이 살림꾼이 되어 고을 이 루기를 해내는 데 있다.

살림꾼이 고을주민이어야 하나 오늘의 고을 모습은 고을사람이 살림꾼 노릇하기가 쉽지 않다. 허니 고을밖이 크게 미친다. 고을밖의 힘으로는 국내·외 자본과 정부가 있다. 정부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있지만 지방자치이름으로 중앙정부는 손때고, 지방정부는 돈이 없다고 하나, 그보다 선거때문에 어떤 부문과 지역은 오히려 빼버려 지방자치속에서 고을안 불균등을 만든다. 자본은 고을이 쓸모있을 때는 개발하기 마련이며 고을키운 열매를 얻고 자함에 있음으로 고을사람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모순을 알고 풀 살림꾼(개발주체)을 바로 세워야 하나 고을사람이 스스로 못하니 결국 고을밖의 힘에 기대야 하는데, 아직은 지방정부 및 특히 중앙정부가 나서

야 할 밖에는 없다. 허나 나서질 않는다는 데 걸림이다.

2)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려면 어떤 가치를 생각해야 하나?

삶을 만인이 만인에 대한 싸움이라 한다. 이 시대흐름을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라고 함은 시·공간적으로 무한경쟁시대임을 말한다. 이는 싸움터가 집안이나 마을이나 고을이나 나라안에서 싸움만이 아니라 누리로 까지 넓어져 온누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됨을 뜻한다. 이래 살아남자니 싸움의 팽팽한 줄위에 사는 꼴이 되었다. 바람직한 삶이 아님에도 벗어날 바가 없기에 받아들여야 할 틀이다.

헌데 삶에는 오직 하나의 가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가치(反價値)가 같이 있기 마련이다. 흑백논리로 어느 하나가 늘 두드리면 다른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정도차가 있지만 서로 반대지만 같이 얹혀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모순이라 한다. 서로 돕기도 하지만 한편 서로 잡아먹는 사이로서 같이 자리한다. 이것이 있음(존재)의 참모습이다. 이래 필연적 모순이라 한다. 가치와 반가치간의 조화와 모순이 오묘하게 얹힘이 삶을 더욱 깊게 한다.

이를 하나의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삶의 길에 그에 반가치인 느긋한 사회, 느긋한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 마련해 둬야 마땅하다. 이와 같이 서로 맞보는 가치가 많다. 보기로 세속됨과 거룩함, 도시다움과 시골스러움, 아름다움과 더러움, 인공과

자연, 성장과 안정, 능률과 형평, 개발과 보전, 자유와 평등, 성장과 낙후, 개인과 전체 등 짝들이 많다. 고을다룸에서는 어느 한 가치만을 자로 삼을 곳이 아니요, 더욱 하나만을 우뚝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지나치면 그것을 누르기 위해 다른 것을 키워 서로 짝짓기해 놓음으로써 있음의 참모습을 이루어 놓을 때 그것이 절로 됨에 가까웁다. 삶(살림)이란 가치와 반가치가 어울린 있음의 참모습을 만들어 간다고 본다면 가치에 억눌린 반가치를 살펴보고 그것을 가치에 짝이 되도록 세워 봄이라 하겠다.

고을살림의 바램과 고을사람들의 삶에 바램이 무엇인가를 물음에서 고을살림의 길을 찾는데 먼저 삶과 온누리의 참모습을 찾아 보고 그런 것을 이루려는 생각을 해봄직 하다.

3) 고을을 어찌할 것인가?

고을살림 갈래를 보면 잘된 고을과 안된 고을을 달리한다. 잘된 고을은 더욱 부채질을 한다. 안된 고을은 기다림인지 그냥 놔두고 보는 양 한다. 사람이 떠나기만 한 고을을 새로 키우려면 무엇을 채워야하며 누가 살기를 바래야 하는가?

이런 고을에는 세 길이 있다. 하나는 고을비우기다. 아예 비우기를 하거나 그냥 놔두고 보면서 기다려 보기다. 고을이 쓸모있어 개발을 이룰때까지다. 이런 때 자칫 정부가 무엇하느냐고 욕먹는다. 그래 눈감고 아웅하는 잔꾀를 내본다. 둘째는 오늘 사는 사람들이라도 살도

록 살펴보기다. 이는 이웃돕기 마음이랄까 곧 사회공간적 불균형때문에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서둘러 피내어 돈써보기다. 허나 밑빠진 독물붓기처럼 열매가 잘 들어나잖아 정부는 정치적 생색내는 선에서 그치곤 하여 고을사람살림개발이 제대로 안된다. 셋째는 새로운 사람이나 일(시설 및 기능 또는 활동)로 채우기다. 이로써 고을안에 사람과 일은 바뀌치기가 일어난다. 이는 이른바 고을살림(지역개발)이름으로 돈을 크게 쓰면서 정부나 민간이 고을(지역)을 쓸모있게 만듦이다. 고을 바뀌치기는 자본에게 얻음이 클지모르나 사는 사람과 고을안 자원썩에서 반드시 바람직함만은 아니다. 바깥 것을 억지로 심는 것이 되기때문이다.

바람직하기는 오늘 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고을이루기를 만들도록 지원 및 개발들을 짜서 클 계기를 마련함이다.

4) 어떤 기능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고을살림은 삶터로서 살맛, 살멋, 살보람이 있게함이다. 그러자면 먼저 고을안에서 삶의 모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고을삶의 완결성을 뜻한다. 이는 한 바램속에서 고을안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기능의 기본수요(basic need) 또는 존재의 기본기능(또는 활동)이 일컫는다. 이를 유엔(UN)은 열두가지를 든다. 먹거리, 옷, 집, 몸, 썸과 아낌, 일자리, 쉼·놀이, 배움, 일터, 교통, 안전, 자유 들이다. 이들 기능이 최소한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음으로 고을은 다른 고을과 이어짐으로

고을된다. 고을이름에는 열림이 있기 마련이다. 그로 고을이 된다. 그것을 고을의 전문, 특수 또는 특화기능(활동)이라 함직 하다.

고을이 갖추어 두갈래 기능을 살려냄이 고을 살림이다. 이 기능의 어느 것로부터 비롯할 것인가에서 고을살림 방법의 갈래가 진다.

첫째는 내부수요 곧 고을의 존재 기본기능 채우기에서 찾는다. 고을안에서 삶이 완결됨을 바라봄이다. 이는 경제기반 이론에서 비기반활동으로 고을키움(지역성장)을 비롯하려 함이다. 고을이 큰 경우에는 이 기능만으로도 고을 키움을 이룸직하고 본다. 허나 작은 고을은 이 기능자체가 작기에 성장발미로서 어렵고 갖추어져야할 기능이란 점에서 마땅함으로 키워야 한다고 본다. 고을삶의 완결성은 고을 스스로 서기이다.

둘째는 외부수요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경제기반이론의 기반활동으로 고을키움을 비롯하려 함이다. 이는 고을 팔기요 고을 넓혀 쓰기다. 여기에 두갈래가 있다. 하나는 고을것을 밖으로 내다파는 내보내기의 고을팔기요, 다른 하나는 고을에로 불러 들이기의 고을팔기다. 내보내기에는 노동력, 돈(지역의 투자나 저축 등), 정보기술, 재화와 용역 등이다. 고을넓혀 쓰기인 이 길은 고을사람을 다른 곳에 살게하고,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돈벌여 들고, 고을 밖에 나간 사람들 및 돈들을 고을이 중심되어 있고, 고을의 중심됨으로써 고을경계를 개구리뿔처럼(leaf-frog: 飛地) 크게 넓힘이다. 이는 다른 고을착취(식민지 지배)를 뜻하는

바 다른 고을에 뿌리내리는 틀을 알고 마련해야 한다. 한편 내보내기에서 되돌아옴 없는 내보내기인 사람빠져나가거나 돈보내주는 고을키움에 도움이 아니라 갈수록 작아지게 한다.

셋째는 불러들이기다. 불러들일 것은 사람, 돈, 재화와 용역, 정보와 기술 등이다. 불러들일 사람에는 오래 살사람(이 속에서는 일하며 살 사람, 몸·마음쉬러 올 사람, 은퇴자, 은둔자 등), 배울 사람(유학생 등), 일볼 사람(장똥배기 등), 일꾼(출퇴근 노동력 등), 나그네(순례자, 관광객 등) 또는 쓰네기(통과자 등)들이 있다. 들어올 돈에는 투자할 돈, 밖에서 부친 돈, 기부금이나 보조금 등이 있다. 여기에서도 출퇴근 노동력이나 이익을 빼내갈 투자는 고을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재화와 용역, 정보와 기술의 들고남에서 잇속의 남김은 없고 뉘음의 빠져나감만 있을 때 고을살림은 밀진다. 그래 사람이던 돈이던, 재화와 용역이던 정보이던 기술이던 고을에 뿌리내리며 부가가치 또는 고을안에 여러갈래 가지침이 있도록 하는 받아들임의 틀, 곧 선택적 단절(selected closure)의 기제가 있어야 한다.

이들 세갈래 길은 고을 울타리를 중심으로 살피면 첫째 길은 고을 울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길로서 고을 좁혀쓰기이면서 고을 잘게 쪼개쓰기라고 하겠다. 둘째 길은 고을의 테두리를 공간적 울타리에 묶어두지 않고 고을 넓혀쓰기다. 이는 고을밖으로 나가

고을 팔기다. 셋째 길은 고을 테두리안에 고을 밖을 불러들여 고을 넓혀쓰기 이다. 허니 고을에 앉아서 고을 팔기다.

5) 세계화와 지역화를 어떻게 맞이 할 것인가?

세계화는 고을 열기요 지역화는 고을 닫기다. 세계화와 지역화사이에 두가지 다른 모습이 있다.

고을의 세계화에는 첫째, 고을이 보편으로서 세계를 닮기, 둘째, 고을의 세계화로 뻗어나가요, 고을 것이 세계에 퍼져 나가기니 세계가 고을을 닮아 가기이다. 한 보기로 흔히 가온고을(중심지)이 둘레고을 나아가 누리를 지배하는 꼴이다.

세계의 지역화에는 첫째, 보편으로서 세계를 고을에 심기라는 뜻과 둘째, 세계를 고을별로 나누기 곧 고을간 차별과 특수을 살리는 뜻이 있다. 그와 같이 나라안에서 지역화(또는 지방화)는 나라의 고을으로 심기 곧 고을의 나라 따르기가 있고 다른 한편 나라가 고을 다스림을 포기함으로써 고을이 스스로 고을살림을 맡도록 하는 흐름으로 고을의 홀로서기이다. 고을사람이 보면 지역화는 열림의 세계화 흐름앞에 울타리가 되었던 나라가 고을 다스림을 포기함에 대한 존재론적 안정을 얻고자 모듬살이 테두리로서 고을 이루기다.

고을에서 세계화를 맞는 전략은 네가지이다(권태준, 1994). 첫째, 땅팔기(place marketing) 전략이다. 둘째, 산업재구조화(restructuring)전

략이다. 셋째, 재산업화(reindustruring)전략이다. 넷째, 문화의 상품화(image sale)전략이다.

땅팔기 전략은 장소판촉 전략이라 일컫는 바로 고을 살림을 위해 어떤 활동이라도 유치하려 고을의 땅 내놓기다. 이는 후진지역의 전략이었다. 산업재구조화는 기존 산업체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공정과 경영체제를 재구조화 함이다. 이는 유연적 생산체제에로 전환을 뜻한다. 재산업화 전략은 기존 산업을 벗어나 정보통신 등에 힘입어 중추관리기능 위주의 활동을 키우려는 바다. 문화의 상품화 전략은 고을다움을 세계시장에서 상품으로 하는 일이다.

변변한 산업마저 없는 고을에서는 땅팔기 전략이라도 쓸 수 밖에 없지만, 그 일마저도 쉽지 않다. 보기로 농공단지를 지정해 놓고도 공장유치가 어려운 일이 그랬다. 그런 고을은 안에서 활동이 적은데다 공장이 들어와도 가동을 도와줄 여러 연계활동과 시설이 없어서 들어오길 꺼린다. 그런 형편이라 없는 고을에선 땅팔기 전략도 힘겹다. 고을안과 어떤 연계 없는 일이 자리하면 우선먹기 꾀감처럼 나중엔 자리만 차지하고 오히려 고을 환경문제 및 개발의 섬이 되어 고을에 골치된다. 그래 요새는 이 꾀보다 다른 전략으로 나가려 한다.

다른 길들은 새로운 탈바꿈에 이미 있는 일을 그루터기로 하여 바깥 것을 접붙이기다. 이로 고을을 새롭게함으로 고을다움을 아루는 뜻이있다. 접붙이는 솜씨가 있어야 한다. 곧 세계화란 고을로 하여금 열림과 닫힘속에서 임

자되어 이네(자기)됨을 요구하는 흐름이라 이에는 시간과 공간차원에서 옛이란 전통과 역사 및 새로움이란 앞날과 바깥 것을 오늘의 내됨(자기화)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정보화와 절로됨(생태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장과 안정 또는 능률과 형평은 개발에서 사회와 경제사이에 낀 올무이자 열쇠다. 개발과 보전은 절로됨(자연)과 억지됨(인공)사이에 낀 올무이자 열쇠다. 요새 환경친화적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개발가치로 나왔다. 나라수준에서 고을다름은 나라원통(국가전체)의 성장과 형평에 초점이 두어기에 개발열매는 나라원통 또는 고을원통(또는 평균치)만 애기되고 고을안에서 형평과 생태환경 및 자원보전을 함부로 하거나 못본척 했다. 허나 이제 고을은 바로 삶터인바 고을살림의 열매는 나눔에서 이웃과의 차이로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 나아가 자원의 망가짐과 자연생태질서 바뀔은 곧바로 삶에 와 닿는다. 하니 바로 고을살림에는 개발의 현장성을 따져야 한다. 해서 고을살림은 자연에 대한 앎부터 나아가 고을의 옛 역사·전통에 대한 앎부터 비롯하지 않을 순 없다. 나라차원의 고을살림은 고을간 차이 없애기인 만큼 고을입장내서 보면 바깥 눈으로 본 개발과 방식을 씌움으로 나라 것의 고을되게하기 또는 나라 것의 고을심기이다. 그 후유증때문에 고을차원에서 고을살림이 중시되는바 고을차원에서 고을살림은 고을의 고유성

만들기일 수 밖에 없다. 고을살림은 곧 우리고을 만들기, 우리고을 되기, 우리고을 이루기다. 그러자면 고을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고을정보생산이 처음 할 일이다.

정보화는 사람을 정보소비자로서 만들며 함께 생산자이길 바란다. 마찬가지로 고을에도 그러하다. 고을의 정보화는 두가지가 담겨 있다. 하나는 외래정보의 고을내 받아들임이다. 이는 정보소비이다. 다른 하나는 고을을 정보샘(情報源)으로 만들기다. 이는 고을이 정보생산지 되며 고을자체가 정보덩어리가 됨이니 고을정보 되기다. 고을이 정보덩어리됨은 고을이 고유함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이 있기 앞서 주어진 자연환경과 그위에 사람이 살았던 만큼 사람이 닦아서 손때묻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 고을자체가 정보덩어리고 이것을 다시 때맞추어 정보화하는 일이 고을의 정보화 하나다. 나아가서 고을을 알리는 정보화가 있다.

먼저 고을 정보만들기의 정보화 길로는 먼저 첫째, 고을을 정보화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다. 고을을 연구의 대상이며, 학습의 대상으로 삼는다. 고을은 자연과 사람의 어울림인 만큼 고을 정보생산의 정보화는 자연의 절로됨과 그것에 대한 사람의 정보화가 어울림이 깔려 있다. 자연의 절로됨에 대한 앎과 그것에 대한 사람의 일에 대한 앎이 함께 갖추어야 한다. 둘째, 고을사람이 고을정보 소비자인 만큼 새로운 정보생산을 위한 정보 제공자이고 바로 정보 생산자가 되기다.

이런 한보기로 마을(면 또는 고을)신문만들기, 마을지(誌)(면 또는 고을)만들기 등 글쓰기로 고을정보기록마련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보 생산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두번째 보기는 고을됨을 알고 고을에 맞는 일을 찾아내는 연구를 일으킨다. 연구는 이 자체가 생산활동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고을의 쓸모찾기요 고을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일이며 고을관심을 높여서 고을 이루기의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다.

세번째 보기로 고을사람 교육이다. 교육은 정보소비자 및 생산자로서 바탕마련이다. 대상은 고을사람들과 불러다 키울 바깥 사람들이 있다. 고을사람 키우기는 고을의 정보생산자로 키우기요, 사람키워 다른 고을에 내보냄으로써 고을 알리기도 된다. 헌데 교육도(道)면 고을 환경이 온통 교육함이어야 한다. 고을사람뿐 아니라 제도 및 물적 환경이 교육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을살림은 교육을 중시하며 고을환경의 교육됨을 이루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을의 알림으로서 정보화 길에는 사람 불러들이기로서 이른바 관광이 있다. 고을은 여러 갈래 사람들이 드나들기 마련이다. 나그네, 뜨네기, 순례자, 장돌뱅이, 거지 등의 사람과 때로 피난, 은둔, 은퇴, 아픔, 요양, 쉼, 죽음 등의 까닭으로 드나들 사람 등으로 여러 갈래다. 살맛나는 삶터가 될 때 사람이 모일 것이다. 고을 나름대로 꺼리가 있을 때 그것을 얻고자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럼으로 고을다움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오는 사람을 맞이할

따름이다.

관광객을 오게함은 그가 쓰고갈 돈 때문이다. 고을을 관광지 만들자면 돈쓰는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기다. 그리하여 관광객이 다녀가고 또 오게하며 그가 가서 다른 사람을 권해 오도록 하게 만든다. 이로서 고을의 정보화가 될 것이다.

헌데 나그네의 고을체험이 돈쓰는 재미 이외에도 삶에서 소중한 체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살고있는 고을사람들의 삶모습이거나, 고을에서 배울 바, 나아가 확트임의 깨침을 얻거나 뭔가 삶의 짐을 훌훌 털고 가는 맛이 있거나 거룩함을 느끼고 감으로써 삶의 새힘을 얻고가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는 사는 고을사람도 고을에서 살 맛과 멋의 느낌을 갖을 때일 것이다. 아마도 나그네도 그것을 느낄 것이다. 그런 관광을 통한 고을의 정보화가 고을 알림이기도 하면서 고을다움 만듬이기도 하다. 이런 고을다움 만듬으로서 고을살림은 고을 자연의 절로됨에 대한 사람의 정보화의 바른 살림이라고 보인다. 절로됨의 생태화와 사람의 정보화는 서로 울무이자 열쇠다.

2. 고을살림의 길

1) 모듬살이를 세우기

모듬살이에는 여러겹에 포개진다. 이를 정주체계의 계층성으로 중심지 체계라고 한다. 이런 공간구조는 그릇이다. 그속에서 산 사람과 일이 만들어 놓는 어떤 것이다. 그 속을 채운

것들이 빚어낸 들어남이다. 그래 공간적 모둠살이를 만들기란 그것을 채울 사람과 일없으면 되잖는다. 모둠살이들은 자연과 사람이 오랜동안 만든 것이기에 관성(inertia)이 있어서 사람과 일에 힘을 미친다.

그러나 모둠살이 짜기는 개발결과로 나타날 그러면서 개발과정에서 힘을 잘 쓰게 할 모둠살이를 미리 생각한다. 모둠살이들은 개발바람이 되며 한편 개발수단이 된다.

백제권 모둠살이를 분석에서 본 것처럼 권역전체를 틀지울 중심지체계도 마련됨 없고 군별로 보아도 볼품없다. 그것을 살리는 피하나가 성장거점(growth pole) 또는 성장중심지(growth center)전략으로서 한 큰 중심지를 먼저 키울 수도 있다. 이는 그것 하나만 잘 크면 아래중심지체계가 따라 생기리라 기대하는 꾀다. 하나 그렇지가 못하다. 이는 성장거점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겠으나 그보다 성장거점을 키워도 그것이 계속 잘되려면 그것 둘레가 받쳐주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기 때문이다. 둘레힘이 가온을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거점 세움만으로 안된다.

실제 성장거점 세우려는 사이 오히려 둘레가 더 말라간다. 성장거점 키우기가 둘레비위 가온채운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러나 성장거점이 커봤자 그것 받쳐줄 둘레가 말랐으니 성장거점이 더이상 클 길이 없다. 이 울무풀길은 가온고을을 성장거점으로 키우더라도 아울러 아래 중심지체계도 살피야 한다. 헌데 큰 중심지를 잡아 성장거점하려해도 안되는 데

아래중심지는 집적의 규모경제가 작으니 키우기란 더욱 힘들다. 이는 그간 정주체계의 변화가 말한다. 교통·통신이 좋아지니 고을안의 계층은 갈수록 짧아진다. 가장 작은 모둠살이인 마을과 고을중심지사이에 발달되었던 학교소재지, 면소재지 내지 장터 등 중간계층 중심지가 몰려진다. 심지어 군청소재지인 읍마져 약해 왔다.

그래 성장거점에 해당된 고을중심지와 마을 또는 집사이 고리를 짧게 하는 방법이 있다. 성장거점이 될 중심지와 모둠살이 씨앗인 마을을 함께 키갈(중심지와 마을을 잘잇는) 모둠살이들을 생각해 봄직하다. 그리하면서 현존하는 학교소재지 및 면소재지의 크거나 줄어든은 기다려봄이 하나의 전략이라고 본다. 다만 마을과 성장거점은 너무 떨어졌거나, 생활권역으로 불편한 경우는 중간 계층의 중심지를 키워야 하고, 다른 한편 마을수준에서 존재기본기능이 이루어진 삶이 되도록 순회제도를 빌려야한다. 왜냐하면 시골마을은 소득수준이 낮고, 사람들 나이가 많아 스스로 교통수단을 갖지도 다루지도 못하며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못해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2) 사회간접자본

고을살림의 수준반영과 개발게기되는 것이 바로 사회간접자본이 얼마나 있느냐이다. 사회간접자본은 물리적으로 고정된 것과 사회적 제도까지를 뜻하나 경제적으로 못사는 고을은 물리적 사회간접자본 빈약이고 그 중에서도

옳음이 교통시설이다. 고을은 다른 고을과 잇대어야 한다. 잇대는 물적수단이 교통시설이다. 길이 막혔있는 데에 개발이 될리가 없다. 길뚫기가 개발 그자체요, 개발로 가는 길이다. 길내기도 군내의 면간 순환길 내는 것, 마을간 내터주는 일이다. 길은 열림이라 어떤 고을 어떤 마을 어떤 곳은 닫아두어야 할 것이 있으면 길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들을 빼놓고 사람살터에 길내기가 먼저 챙길 일이다. 이런 교통을 비롯 통신시설, 에너지 시설, 나아가 사회복지 및 문화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바로 고을이 사람사는 곳이게 하는 존재 기본기능이 이루어지는 바탕마련이다. 이로써 최소한의 지역간 형평성을 이룬다. 그것을 먼저 고르게 함이 나라가 고을다스림에서 할 일이다.

3) 고을의 교육, 연구 및 정보화

고을살림은 고을을 잘 다뤄 값진 것으로 함이니 고을의 값짐을 알아야 한다. 이 길은 고을 그자체에 있다. 빌려온 방식을 따짐없이 고을에 써먹으면 고을에 보탬안된다. 고을살림하려면 먼저 고을을 알아야 한다. 바깥 방식을 빌려 쓰기위해서도 고을을 알아야 한다. 고을 밖에서 빌린 껍도 고을에 써먹자면 고을에 맞추어야 하기마련이어서 고을살림길은 고을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니 고을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연구는 기록으로 남고 그것이 정리되며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밖으로 알리기도 해야 한다.

고을살림은 먼저 고을사람부터 살림이니 사람의 얼과 닢을 깨치며 연구능력 바꿔말하면 정보소비 및 생산능력을 키워야 하니 고을교육을 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을연구는 고을 사람 모두의 몫이라 고을연구와 정보화를 위해 고을사람들이 연구자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이 교육은 정보 생산자가 될 교육이어야 한다.

고을연구에서 먼저 할일은 고을의 연구소재를 만들기다. 그 하나가 한사람 한사람의 삶이 기록되며, 집마다 기록되며, 마을마다 기록되며, 고을이 기록되는 것이다. 이런 기록은 일기 쓰기, 집안 내려쓰기, 마을지 만들기, 신문 만들기, 글짓기 등에서 비롯 예술과 문화운동의 자국 등이 있다. 이런 기록들이 부추기고 여러 곳에 간직하며 두루 보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집안책방, 마을도서관 등 여러 곳에 도서관 세우고 나아가 문화공간 등 모임마당들이 펼쳐져야 한다.

더욱 공공활동은 공개적으로 비판되는 풍토 곧 말길과 글길 등 자기표현의 길이 트인 마당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마당은 삶을 푸는 푸닥꺼리 잔치가 열림으로 더불어사는 모듬살이 터가 된다.

4) 부추기기

이런 고을살림은 일로서 이우러지지만 일이 벌러질 명석이 퍼져야 하고 일을 추리릴 살림꾼이 할맛이 나야한다. 고을살림이 일어나게 할 밑미가 있어야 한다. 고을살림에 불쏘시개로는

첫째, 고을에 부쩍땀을 만드는 것과 둘째, 부추김이 있다. 아울러 셋째, 물적 바탕마련이다. 앞의 둘은 사회분위기라하면 뒤는 공간틀이다.

고을에 집적이익(agglomeration advantages)이 있으면 사람, 일, 정보, 돈, 재화와 용역들이 모이고 불어나는 바 고을 크게하려면 집적이익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는 고을에 뭔가 모이고 쌓일 빌미를 마련함이다. 누군가가 고을에 돈을 쏟아부어 일자리나 일거리를 만드는데 승수효과가 큰 부문에 쏟아 붓는다. 그에 못잖게 잔치벌려 사람, 돈, 일감이 팔려오길 바라보기다. 그런가 하면, 밖에서 절로 굴러들거나 찾아오도록 하는 꾀를 내본다. 그러자면 고을에 뭔가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여기에 먼저 그릇을 만든다는 뜻으로 공간적 관점에서 중심만들기 나아가 그를 비롯한 모듬살이틀을 짜야한다. 중심지란 집적이익이 있는 곳을 말한다. 그것은 둘레의 희생(또는 착취)위에서 생기기 마련이나 고을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중심지가 발달되지 않은 만큼 중심지를 키우는 것부터도 하나의 방편이 된다. 가장 작은 모듬살이 단위는 마을인데 마을이 중심지를 떠받드는 바탕이다. 이로 부터 여러 겹의 중심지가 있기도 하는데 모듬살이틀 짜기는 마을에서 원고을까지 여러 겹의 중심지 키우기도 된다. 중심지 키우기란 돈써서 새 일자리 만들고, 사회복지 시설세우고, 순회제도를 통해 행정하기도 하지만 문화잔치를 펼쳐 공간적·비공간적 집적계기를 마련 집적이익이 생길 씨앗을 자주 중심지들에 심어보는 길이

따라줘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및 문화시설은 이용자 부담이라 못산 고을이나 마을사람들은 시설과 잔치가 벌려도 그림의 떡이다. 그들에게 찾아나서서 그냥 보여주어도 불응말등하는 처지다. 그런데다가 상업적 문화잔치는 물건팔기이라 독통에 감추인 것까지 빼가려는 찰지만 쓸돈없는 사람들에게겐 별 수지맞지 않으면 안하기 마련이다. 상업적 문화잔치가 갖는 부쩍땀 곧 활기불어넣기도 사람없고 가난한 고을에는 그런 잔치마저 열리지 않는다. 이런 처지의 고을에는 정부가 나서서 문화잔치를 벌려 살맛나게 해주어야 한다. 이로써 마음에 신바람을 불어주고 그런 잔치로 경제 및 문화활동에 바람일길 서서히 기다리는 참음으로 해야 한다.

부추기려면 겨루기(경쟁제도)를 써서 끌러붙적 하다. 여러 분야별로 겨루기를 함으로써 바람넣어 본다. 이는 마을만들기에 새마을운동이 택했던 등급과 포상제도이기도 하다. 이는 주로 물리환경과 경제소득에서 등급화를 했었다(권태준 외, 1981:199). 이제는 역사와 문화 나아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면서 마을만들기, 면만들기, 고을만들기도 하면서 한사람한사람 또는 한집한집이 마을, 면, 고을, 나라, 더 나아가 누리의 주인공으로 깨침에 이르도록하는 뜻에서 겨루기를 써붙적하다. 개인별, 마을별, 면별, 학교별, 단체별, 기관별로 겨루기를 하게 한다. 도덕적 설득만으로 부추기가 어려운 만큼 겨루기로 끌어 보아야 한다. 이것은 부추기기 위한 방편이면서도 그 일 자체가 잔치이니

까 고을에 역사를 하나씩 만든 일도 된다.

이처럼 사회분위기 돌우고, 공간적 망석깔기로서 한편 물적인 바탕인 교통시설을 비롯 여러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진 모듬살이들을 짜야한다. 사회간접자본이 만들어져도 고을의 비용부담능력이 없으면 보수·유지가 어려워진다. 고을키우기에는 여러 고리가 얹혀 있다. 돈이 많이 들면서도 자본회수가 오래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세워 물적 바탕마련도 해놓아야 하지, 그위에 사람과 일이 모여 판벌리도록 신명부추길 꺼리마련과 틀짜야 하는데 적잖은 돈이 든다. 스스로 할나위없는 고을에 꾸준히 자주 벌려야 한다. 이 일은 살고 있는 주민이 하기에는 힘이 따르는 만큼 정부주도에 기업이 도와 추수려야 한다.

Ⅲ. 백제권 모습

1. 백제권의 자리뒹

1) 사람

(1) 사람과 땅넓이

백제권은 1994년 현재 4군에 5읍 44면 8동으로 넓이는 2,588.7km²으로 충남에서 30.9%를 차지한다. 사람은 404,947명으로 충남의 21.9%, 집은 115,442으로 충남의 21.6%를 보인다. 넓이에 비해 사람이 덜 사는 편이라 인구밀도 157명으로 충남의 평균인구밀도 221명보다 낮다. 백제권은 공간상 충남의 가운데지만 묶은 그렇지 못하다<표1 참조>.

<표 1> 충남권역별 넓이, 사람 (1991년)

(단위: km, 명, 동)

갈 래	행 정 구 역	넓 이	사 람	집	인 구 밀 도
충 남	23읍 147면 39동	8,367.7 (100.0)	1,844,692 (100.0)	533,852 (100.0)	221
금 강 권	5읍 28면	1,546.9 (18.4)	316,377 (17.1)	92,018 (17.2)	205
백 제 권	5읍 44면 8동	2,588.7 (30.9)	404,947 (21.9)	115,442 (21.6)	157
서해안권	8읍 45면 12동	2,455.0 (29.3)	529,282 (28.6)	150,402 (28.1)	216
북 부 권	5읍 30면 19동	1,771.1 (21.1)	594,086 (32.2)	175,990 (32.9)	334.3

(2) 사람 늘고 줌

충남에서 대전이 직할시되면서 나간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충남 사람들이 줄었다. 5년

동안 157,992명이나 되어 감소율의 연평균이 1.6%이다. 이 속에서 금강권과 백제권이 평균 이상으로 줄었으며 백제권에서 가장 많이 줄

었다. 5년간 57,506명으로 연평균 115,012명이
 람비중이 22.8%에서 1994년에 21.9%로 낮아
 며 2.6%나 된다. 이리하여 1989년 충남에서 사
 졌다<표2 참조>.

〈표 2〉 권역별 인구변동

갈 래	1989년	1994년	89-94년	감소율연평균
충 남	2,022,684(100.0)	1,844,692(100.0)	-157,992	-1.64
금 강 권	357,502(17.6)	316,377(17.1)	-41,125	-2.44
백 제 권	462,453(22.8)	404,947(21.9)	-57,506	-2.66
서해안권	580,151(28.6)	529,282(28.6)	-50,869	-1.84
북 부 권	602,578(29.7)	594,086(32.2)	-8,492	-0.28

백제권안에서 지역별 사람늘고남을 보면 네
 지역 똑같이 1964-5년 뒤로 1993년까지 줄었
 다. 바꿔말하면 1964-5년을 꼭대기로 사람이
 늘다가 그 뒤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줄어 들었
 다. 1960년 중반은 조국근대화 깃발아래 공업
 화를 시작하는 때였다. 그뒤 여러 모양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했다고 하나 공업화 그짜이 된
 도시화 흐름앞에 군단위의 모둠살이는 사람을
 모두어 두질 못했다고 할 만하다<표3 참조>.

1993년에도 인구이동 방향을 보면 시도의
 전출이 시도내 전출보다 우뚝 높은 것은 군단
 위의 모둠살이가 어려움을 말한다<표4 참조>.

〈표 3〉 군 인구변동

갈 래	가장 많은 사람수와 해	1993년 사람
부 여	1964년 195,843	109,727
공 주	1965년 204,207	83,544
청 양	1964년 107,228	49,018
예 산	1965년 180,045	114,655

주: 1) 1965년은 공주읍이 포함되고 1993년에는 공주군만임.
 자료: 『충남통계연보』, 1962-1994.

〈표 4〉 인구이동 (1993)

갈 래	총이동률		시도내		시도외	
	전 입	전 출	전 입	전 출	전 입	전 출
충 남	11.9 <	13.5	6.3	6.4	5.6	7.1
부 여	7.0 <	10.1	2.6	2.8	4.4	7.3
공 주	7.4 <	11.2	3.1	4.1	4.3	7.1
청 양	6.5 <	10.3	2.6	3.0	3.9	5.8
예 산	7.4 <	9.8	3.4	3.8	4.0	6.0
공 주 시	19.3 <	19.5	14.0	13.3	5.3	6.2

주: 『충남통계연보』, 1994.

(3) 군별 사람 특성

군지역에서 사람은 지난 30여년에 걸쳐 쪽 줄어 왔다. 그럼에 군지역에 인구학적 특성 또한 크게 달라 졌다. 나이별 분포와 성비(sex ratio)이다.

1966년과 1990년은 비교하면 어린아이부터 더해서 인구절반이 되는 나이를 보면 1966년에는 19살아래이나 1990년에는 29살까지 더해 야 된다. 한편 65세 이상의 비중이 1966년에는 4%아래였는데 1990년에 오니 8-10%나 된다. 이를 노령화요 젊은이가 없는 곳이됨을 말해 준다.

성비특성을 1966년에는 29살아래에 까지

성비가 100을 웃돌다가 그 뒤부터 떨어 졌다. 1990년에는 성비가 100이상되는 나이가 45세 까지 이른다. 이는 건전한 가족구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직하다. 허나 20-24세 사이에 성비가 160-212까지 이르러 성의 불균형을 크게 보인다. 농촌지역 총각의 결혼 어려움을 잘 나타낸다.

고을의 주체는 사람일진대 사람 수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준데다 태어난 아이수도 많지 않고 자신이 고을주인될 사람이자 앞으로 주인될 사람낱을 젊은 총각이 장가를 못들게 되었다. 이로써 군지역개발에서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가 큰 꺼리이다<표5, 6, 7, 8 참조>.

〈표 5〉 부여지역 연령별 인구 및 성비

(단위: %)

갈 래 부 여	1966			1990		
	구성비율	누적비율	성 비 ¹⁾	구성비율	누적비율	성 비
			102.0		99.1	
0 - 4	16.4	16.4	107.7	5.3	5.3	112.2
5 - 9	16.8	33.2	108.1	8.4	13.7	103.3
10 - 14	12.5	45.7	110.7	10.7	24.4	101.0
15 - 19	8.3	54.0	110.7	10.7	35.1	100.1
20 - 24	7.7	61.7	125.2	8.2	45.8	202.9
25 - 29	6.5	68.2	99.5	5.7	49.0	103.3
30 - 34	6.2	74.4	95.1	6.3	55.3	96.1
35 - 39	5.0	79.4	92.5	5.7	61.0	98.7
40 - 44	4.4	83.8	92.8	5.2	66.2	102.4
45 - 49	3.8	87.6	88.9	5.5	71.7	93.6
50 - 54	3.3	90.9	85.9	6.5	78.2	86.9
55 - 59	2.9	93.8	85.0	6.4	84.6	86.5
60 - 64	2.1	95.9	80.7	4.9	89.5	83.6
65 이상	3.7	99.6	-	9.8	99.3	-

주: 1)은 남자와 여자의 성비임(남자/여자*100)

〈표 6〉 공주시지역 연령별 인구 및 성비

(단위: %)

갈 래	1966(공주읍포함)			1990(군지역만)		
	구성비율	누적비율	성 비	구성비율	누적비율	성 비
공 주			104.7			104.7
0 - 4	15.8	15.8	107.8	4.8	4.8	112.8
5 - 9	16.8	32.6	108.7	7.7	12.5	106.9
10 - 14	12.7	45.3	112.4	10.1	22.6	103.9
15 - 19	8.9	54.2	123.1	12.1	34.7	115.6
20 - 24	6.9	61.1	126.9	10.0	44.7	179.9
25 - 29	6.6	67.7	101.2	6.4	51.1	128.0
30 - 34	6.0	73.7	93.8	5.8	56.9	108.3
35 - 39	4.8	78.4	87.0	4.9	61.8	103.5
40 - 44	4.3	82.8	92.5	4.4	66.2	107.6
45 - 49	3.8	86.6	90.4	5.0	71.2	84.9
50 - 54	3.6	90.2	97.5	6.3	77.5	84.7
55 - 59	3.0	93.2	96.6	6.4	83.9	85.1
60 - 64	2.1	95.3	90.6	4.9	88.8	80.2
65 이상	3.8	99.1	-	10.7	99.5	-

〈표 7〉 청양지역 연령별 인구 및 성비

(단위: %)

갈 래	1966			1990		
	구성비율	누적비율	성 비	구성비율	누적비율	성 비
청 양			103.5			102.4
0 - 4	16.9	16.9	109.5	5.1	5.1	107.7
5 - 9	17.0	33.9	106.6	7.7	12.8	105.7
10 - 14	12.2	46.1	111.4	10.5	23.3	102.4
15 - 19	7.9	54.0	122.4	10.7	34.0	109.1
20 - 24	6.7	60.7	124.6	18.9	42.9	212.5
25 - 29	6.7	67.4	100.7	5.6	48.5	122.4
30 - 34	6.5	73.9	96.5	5.5	54.0	106.3
35 - 39	5.1	79.0	89.8	4.9	58.9	102.9
40 - 44	4.3	83.3	94.1	4.8	63.7	100.5
45 - 49	3.7	87.0	90.2	5.3	69.0	84.4
50 - 54	3.4	90.4	89.7	7.3	76.3	89.1
55 - 59	2.9	93.3	88.0	7.2	83.5	87.1
60 - 64	2.2	95.5	87.0	5.5	89.0	83.7
65 이상	3.9	99.4	-	10.4	99.4	-

〈표 8〉 예산지역 연령별 인구 및 성비

(단위: %)

갈 래	1966			1990		
	구성비율	누적비율	성 비	구성비율	누적비율	성 비
예 산			103.6			101.0
0 - 4	15.9	15.9	105.9	5.3	5.3	108.4
5 - 9	16.7	32.6	107.0	7.8	13.1	104.1
10 - 14	12.8	45.4	108.4	9.6	22.7	99.5
15 - 19	8.6	54.0	121.8	12.5	35.2	93.5
20 - 24	6.9	60.9	128.3	10.1	45.3	160.4
25 - 29	6.7	67.6	104.0	7.4	52.7	119.1
30 - 34	6.5	74.1	97.3	6.9	59.6	103.1
35 - 39	4.9	79.0	89.6	5.7	65.3	104.0
40 - 44	4.4	83.4	92.1	5.1	70.4	102.9
45 - 49	3.8	87.2	92.5	5.1	75.5	91.8
50 - 54	3.8	91.0	89.6	6.1	81.6	91.2
55 - 59	3.0	94.0	92.4	5.7	87.3	87.9
60 - 64	2.1	96.1	91.0	4.1	91.4	86.4
65 이상	3.6	99.7	-	8.2	99.3	-

2) 땅

(1) 토지이용

지역개발을 아는 자로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도시토지 이용률이 충남은 2.8%인데 백제권은

2.2%로 낮다. 도시토지 이용에서도 공장지
은 충남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에 농촌토
지 이용률이 높은 편이며, 산이 으뜸이고 논과
밭은 서해안권 다음이고, 과수는 북부권 다음
이다〈표9 참조〉.

〈표 9〉 지목별 토지이용 (1994년)

(단위: km, %)

갈 래	모 두	도시 토지이용				농촌 토지이용						기 타
		소계	대지	공장	학교	소계	논	밭	산	과수	목장	
충 남	8,367.6 100.0	231.5 2.8	186.5	29.6	15.3	7,275.2 86.9	1,769.6	870.0	4,565.2	45.1	25.1	860.8 10.3
금강권	1,546.8	43.3 2.8	35.9	4.5	2.8	1,352.8 87.5	296.6	154.4	893.9	6.8	0.9	150.7 9.7
백제권	2,588.7	58.1 2.2	50.7	3.3	4.0	2,286.9 88.3	487.8	216.1	1,566.4	11.7	4.6	243.6 9.4
서해안권	2,455.0	66.4 2.7	52.8	9.3	4.1	2,120.5 86.4	538.4	291.8	1,275.4	4.8	9.9	268.0 10.9
북부권	1,777.0	63.7 3.6	46.9	12.3	4.4	1,514.9 85.3	446.6	207.5	829.4	21.6	9.6	198.4 11.2

자료 : 『충남통계연보』, 1995.

나무심긴 산의 넓이 뭉이 충남에서 백제권 등 심긴 넓이도 가장 넓다(표10 참조). 이 35.1%로 으뜸이다.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표 10〉 임상별 임야넓이

갈 래	모두/구성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 림
충 남	4,320/100.0	2,264	1,049	1,005	2
금 강 권	1,009/23.4	446	296	266	1
백 제 권	1,515/35.1	782	387	346	0
서해안권	1,034/23.9	717	138	178	1
북 부 권	456/10.6	233	96	126	0

자료 : 『충남통계연보』, 1995.

논밭의 넓이나 이용률을 보면 서해안권 다 보다 많으나 충남평균에 못미친다. 이는 논밭 음이다. 물댄 논의 비율은 서해안권보다 높은 은 넓은데 쓸모에서 뒤진다고 하겠다(표11 참 나 충남평균을 밑돈다. 농가당 면적은 금강권 조).

〈표 11〉 농경지

갈 래	넓 이	경 지	논	밭	농 가	집당경지	물댄논	물댄율
충 남	8,367.7	274,940	193,070	81,870	197,815	139.0	149,167	77.3
금 강 권	1,546.8 (18.4)	43,383 (15.7)	30,323	13,060	36,763	118.0	23,705	78.2
백 제 권	2,588.8 (30.9)	7,187.0 (26.1)	52,462	19,408	53,015	135.6	39,448	75.2
서해안권	2,455.0 (29.3)	9,179.2 (33.3)	62,957	28,835	63,563	144.4	44,016	69.9
북 부 권	1,777.1 (21.1)	6,789.5 (24.6)	47,328	20,567	44,474	152.7	41,998	88.7

자료 : 『충남통계연보』, 1995.

(2) 길

고을개발을 알 하나의 좋은 자가 물적 바탕 하나인 교통시설로서 길이 얼마나 잘 나있나 이다. 권역간 넓이와 도로길이 비중을 비교해 보면 북부권이 넓이비중 21.1에 비해 도로길이 비중은 25.5로 높고 다른 세권역은 낮다. 곧 금

강권은 18.4 대 17.3, 서해안권은 29.3 대 27.6 백제권은 30.9대 29.3%이다. 권역넓이에 대한 도로길이 비를 보면 충남 평균은 1,000km당 604km인데 북부권이 727km로 높고 다른 세권 역은 평균보다 낮다. 그 중에서 백제권은 573 km로 높은 편이다.

포장률을 보면 도로길이가 넓이에 비해 많은 북부권이 73.5%로 가장낮고 다음이 백제권이다.

지방도 포장률에서는 87.2%로 충남평균 95.3%에 못미치고 시군도 역시 56.8%로 충남평균 62.1%에 비해 낮다<표12 참조>.

<표 12> 도로 (1994년)

(단위: 1,000km)

갈 래	도로길이 / 권역넓이	도로 모두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모두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	모두	포장/ 포장률	모두	포장/ 포장률	모두	포장/ 포장률
충 남	604.2	5,055	3,875/76.6	1,086	94	1,102	1,102/100	1,055	1,035/95.3	2,768	1,718/62.1
금강권	568.7	879	672/76.5	176	30	170	170/100	258	42/93.5	419	229/54.7
백제권	573.9	1,485	1,102/74.2	363	19	403	403/100	277	241/87.2	804	456/56.8
서해안권	569.3	1,397	1,149/82.3	230	16	291	291/100	283	270/95.3	823	587/71.3
북부권	727.5	1,292	950/73.5	315	26	236	236/100	299	232/77.7	720	444/61.7

자료 : 『충남통계연보』, 1995.

3) 사람 일

(1) 농업

권역별간에 사람비중과 농사꾼(농업인)비중을 맞대어 비교하면 북부권을 빼고 세 권역은 농사꾼 비중이 높고 백제권이 더 높다. 다시 권역별로 농사꾼 비중 곧 농업부문의 취업정도라고 보면 백제권이 44.4%로 가장 높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이긴 하나 물댄 논의 비율도 낮으며 농경지가 적어도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살아 농가당 경지면적은 작은 상태이다. 현대 인구감소 정도가 금강권이 백제권보다 낮은 것으로 보면 금강권이 농가당 면적이 작아도 대전근교지역이란 점때문에 백제권보다 농업생산 또는 소득이 높은 것이라고 어렵شم을 함직하다. 이런 어려움이 맞다면 백제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농업부문에서 가장 낮은 불리한 처지라고 본다<표13 참조>.

<표 13> 농가 (1994)

(단위: 명, %)

갈 래	사람(가)	농사꾼(나)/비	농가/비	농사물(나/가)	농가당 사람
충 남	1,844,692	671,291/100.0	197,815/100.0	36.4	3.4
금 강 권	316,377(17.1)	123,994/18.5	36,763/18.6	39.2	3.4
백 제 권	404,947(21.9)	179,804/26.8	53,015/26.8	44.4	3.4
서해안권	529,282(28.6)	213,437/31.8	63,563/32.1	40.3	3.4
북 부 권	594,086(32.2)	154,056/22.9	44,474/22.5	25.9	3.5

자료 : 『충남통계연보』, 1995.

(2)공업
권역별로 광공업 생산액에서 비중을 보면 서는 33.9%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표 14 참조).
백제권이 10.5%로 가장 낮다. 그러나 광업에

〈표 14〉 광공업생산액 (1993)

갈 래	모두/구성비	광업/구성비	제조업/구성비
총 남	90,820/100.0	1,133/100.0	89,688/100.0
금 강 권	13,491/15.0	176/15.5	13,314/14.8
백 제 권	9,421/10.5	384/33.9	9,036/10.1
서해안권	22,377/24.9	344/30.4	22,035/24.6
북 부 권	45,531/50.8	229/20.2	45,303/50.5

자료 : 『충청남도 산업총조사보고서』, 1995.

다시 제조업에서 사업체, 종업원 생산액, 부가가치 간을 비교해 보면 사업체 비중은 부가가치는 9.8%로서 제조업부문이 생산성이 낮은 업체들이 많음을 말한다(표15 참조).
18.8%이나 종업원은 13.8%, 생산액은 10.1%

〈표 15〉 제조업 (1993)

(단위: 백만원, %)

갈 래	사업체/구성비	종업원/구성비	생산액/비	부가가치/비
총 남	2,601/100.0	100,103/100.0	9,056,240/100.0	3,704,198/100.0
금 강 권	521/20.0	17,837/17.8	1,349,053/14.9	625,783/16.9
백 제 권	488/18.8	13,795/13.8	926,228/10.1	362,156/9.8
서해안권	491/18.9	12,599/12.6	223,7810/24.7	704,358/19.0
북 부 권	1,101/42.3	55,872/55.8	4,553,149/50.3	2,011,901/54.3

자료 : 『충청남도 산업총조사보고서』, 1995.

고용성장률과 생산성장률의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고을을 분류해 보면 대전근교인 금강 권역 고을 다 평균을 웃돌고 북부권 중 아산 역시 웃돈다. 백제권역 중 생산성장률은 낮으나 고용성장률은 높은 고을은 예산과 청양이다. 예산과 청양은 일자리가 새로 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두 변수에의 평균에 못미친 고을이 백제권에서 공주, 부여이다(표16 참조).

〈표 16〉 지역별 제조업성장패턴 (1991)

갈 래	생산성장률>평균	생산성장률<평균
고용성장률>평균	금산, 논산, 아산, 연기	서산, 예산, 청양
고용성장률<평균	홍성	공주, 대천, 온양, 천안, 부여, 서천

자료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산업구조개편방향』, 1995, p.73에서 재정리

4) 사회복지

고을의 수준을 아는 바로 의료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시설 모두의 비중을 사람비중과 비해 높은 권역은 금강권 뿐이다. 이 시설들 중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고르게 분포시킨 보건소를 빼고 고을사람들의 경제수준을 반영하는 시설

로서 의원, 치과 및 한방을 살펴보면, 금강권과 북부권은 사람 비중보다 높으나 백제권과 서해안권은 낮다. 이로써 백제권은 사회복지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이들 시설이 이용자 부담을 나타낸 것임으로 그만큼 경제수준도 낮다고 하겠다(표17 참조).

〈표 17〉 의료시설 현황 (1994)

갈 래	모 두	구성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조산소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충 남	1,234	100.0	9	15	434	182	165	7	20	158	244
금 강 권	229	18.6	1	2	83	31	32	1	3	30	46
백 제 권	268	21.7	2	2	79	30	35	2	5	46	67
서해안권	344	27.9	3	8	112	41	42	2	7	48	81
북 부 권	393	31.8	3	3	160	80	56	2	5	34	50

자료 : 『충남통계연보』, 1995.

5) 모둠살이 틀

(1) 중심성 내지 도시화율

공간구조를 살피는 관점으로서 중심도시의 중심성을 인구비중으로 살펴보면 대전·충남을 묶어 가장 큰 중심지인 대전의 비중을 보면 39.0%이다. 이 수치를 넘은 중심지는 논산시, 공주시, 대천시, 서산시, 온양시, 천안시 등으로 시지역들이다. 이들을 뺀 고을에서 중심지인 읍이 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백제권 역내 부여, 청양, 예산에서는 당진과 서천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이 중심성지표는 도시화율로도 보아 고을발전의 정도를 나타내면서 한편 고을발전의 공

간구조를 아는 지표이다. 이 중심성이 낮을수록 고을안에서 고른 중심지 체계가 되었다고 함직하나, 다른 한편으로 중심되는 읍 중심성이 약하므로 고을안에서 공간적 통합을 통한 고을 전체발전을 촉진하지 못한다고도 봄직하다.

여기에서는 뒤쪽 관점이 맞다. 인구감소가 심하며 인구이동에서 시도외로 나가는 정도가 심한 고을일수록 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이는 고을안에서 중심인 읍이 주변 지역에 중심지기능을 잘하지 못함을 말해 준다. 아울러 중심성이 낮다는 것은 읍이 작다는 것임으로 그만큼 주변에 사람과 활동 및 힘이 없어서 중심지인 읍을 키우지 못했음을 말하기도 한다(표19 참조).

〈표 19〉 중심성 (1993)

(단위: 명)

갈 래		지역사람 모두(가)	시 · 읍 사람(나)	중심성(나/가 * 100)
대전 · 충남		3,049,098	119,118(대전시) 909,954(충남시읍) 2,101,141(계)	39.0 29.9 68.9
충남		1,857,911	909,954(충남시읍)	48.9
금 강 권	금 산	72,736	25,252	34.7
	연 기	83,782	31,738	37.9
	논 산	153,368	77,918	50.8
	계 룡	12,337	12,337(계룡출장소)	100.0
백 제 권	부 여	109,727	30,846	28.1
	공 주	140,472	57,928	41.2
	청 양	49,018	11,701	23.9
	예 산	114,655	39,693(예산읍) 13,998(삽교읍) 53,691(계)	34.6 12.2 46.8
서해안권	서 천	89,760	19,635(장항읍) 15,418(서천읍) 35,053(계)	21.8 17.3 39.1
			54,997(대전시)	41.4
			33,407(홍성읍)	31.9
	대천 · 보령 홍 성	132,978 104,681	18,749(광천읍) 52,156(계)	17.9 49.8
			26,447(태안읍)	34.8
			11,706(안면읍)	15.4
	태 안	76,069	38,153(계)	50.2
			56,250(서산시)	39.9
	서 산	140,786	16,614(대산읍) 72,864(계)	19.6 51.7
북 부 권	당 진	121,495	26,099(당진읍) 16,116(합덕읍) 42,213(계)	21.4 13.3 34.7
			65,438(온양시)	42.8
			7,325(염치읍)	4.7
	아 산	153,857	72,763(계)	47.2
			203,489(천안시)	66.4
			27,577(성환읍)	4.0
	천안 · 천원	306,190	9,276(성거읍) 240,342(계)	3.1 78.5

(2) 행정구역의 크기

행정구역은 나라다스림의 방편으로 땅을 묶음으로 나눈다. 이를 통해 모듬살이 모습을 읽는다. 충남의 군 평균넓이에 비취 청양군이 작고, 부여군, 예산군은 크고, 공주는 아주 크다. 면의 넓이는 부여가 가장 작고, 예산은 평균에 못미치며, 청양과 공주는 넘는다. 리(里) 넓이는 부여가 가장 작고 다른 군은 평균을 넘으며 공주는 훨씬 웃돈다. 반의 넓이는 역시 부여가 가장 작고 공주, 청양이 크고, 예산은 평균과 비슷하다.

행정구역의 위계에 따라 포섭(nesting)을 보면 리(里)가 반을 포섭하는 수의 충남 평균보다 높은 군은 공주와 청양이며, 예산은 평균과 같고 부여는 약간 낮다. 면의 리포섭은 부여가 충남평균을 웃돌며 청양은 평균보다 훨씬 낮다. 군의 읍·면포섭은 충남평균을 넘는 것은 부여이며 평균에 맞먹는 군은 예산이다.

이를 통해 부여는 일찌기는 사람이 많이 살았으며, 곧 마을이 많이 분포되고 마을간 거리가 가까워 반 및 리 나아가 면을 이룸이 적은 하위 행정구역수로 상위 행정구역을 이루었다

고 하겠다. 이에 비해 공주 특히 청양군은 산이 많은 곳이라 마을분포가 드물고 사람이 덜 살아 한 행정구역을 이루는 데 넓이가 넓게 차지하면서 사람수는 적어 면수는 적고 하위 행정구역인 리나 반수가 많게 짜여 있다. 이는 모듬살이가 분산분포를 말한다. 예산군은 전반적으로 충남평균을 보인다.

헌데 오늘날 사람수로 보면 군평균을 웃도는 군은 부여와 예산이다. 읍·면, 리, 반의 충남평균을 넘는 군은 예산군 뿐이다. 예산을 빼놓고 다른 군에서는 읍·면, 리, 반의 평균을 이르지 못한다.

행정구역의 넓이는 크게 바뀐이 없지만 갈수록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며 따라 행정업무를 지탱할 힘이 없어짐을 알만하다. 행정구역의 위계가 모듬살이 틀의 위계 달리 말하면 중심지체계를 반영하는데 오늘의 군단위 아래 모듬살이들은 넓이에서는 옛자국으로서 위계를 간직할 뿐, 기능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여림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공공시설의 하나인 초등학교 폐교가 좋은 보기가이기도 하다(표 2021 참조).

〈표 13〉 행정구역의 크기 (1993)

(단위: km)

갈래(인구밀도)	충남군지역(178.4)	부여(175.5)	공주(96.7)	청양(102.7)	예산(210.8)
군	넓이/사람 (15)532.49/93,831	(1)625.09/109,727	(1)863.59/83,544	(1)477.49/49,018	(1)543.83/114,655
읍·면	넓이/사람 (169)46.67/8,328	(16)39.07/6,857	(11)78.5/7,594	(10)47.74/4,901	(12)45.32/9,554
리	넓이/사람 (4292)1.87/327	(423)1.47/259	(277)3.11/301	(182)2.62/269	(289)1.88/396
반	넓이/사람 (16813)0.46/83	(1638)0.38/66	(1296)0.66/64	(764)0.62/64	(1133)0.48/101
마을	넓이/사람 (9445)0.83/149	(858)0.72/127	(877)0.98/95	(501)0.95/97	(796)0.68/144

주: 충남의 군지역 넓이 7,887.43km², 사람 1,407,472명. ()는 군, 읍·면, 리, 반 마을 개수
 자료: 『충남통계연보』, 1994.

〈표 21〉 행정구역의 포섭정도 (1993)

갈 래	충남군지역	부 여	공 주	청 양	예 산
군	(15)	(1)	(1)	(1)	(1)
읍·면	(169) 11.2 ¹	(16) 16 ¹	(11) 11 ¹	(10) 10 ¹	(12) 12 ¹
리	(4292) 25.4 ²	(423) 26.4 ²	(277) 25.2 ²	(182) 18.2 ²	(289) 24.1 ²
반	(16813) 3.9 ³	(1638) 3.8 ³	(1296) 4.7 ³	(764) 4.2 ³	(1133) 3.9 ³
마 을	(9445) 0.56 ⁴ 2.2 ⁵	(858) 0.52 ⁴ 2.0 ⁵	(877) 0.67 ⁴ 3.2 ⁵	(501) 0.65 ⁴ 2.7 ⁵	(796) 0.70 ⁴ 2.7 ⁵

주: 1)읍·면/군, 2)리/읍·면, 3)반/리, 4)마을/반, 5)마을/리
자료: 『충남통계연보』, 1995.

(3) 모둠살이 크기와 위계 변모

인구 및 주택 총조사자료에서 1966년과 1990년의 24년 사이에 읍면별 사람변동을 보면 가장 많이 준 지역은 청양, 부여, 예산, 공주 등의 순이다.

청양의 경우는 청양읍마저 줄어들었다. 공주읍은 공주시가 되어 215.3%로 늘었고 부여읍은 124.3%, 예산읍은 118.9%로 늘었으나, 삽교읍은 줄어 77.8%에 이르렀다.

읍·면중 사람이 준 곳의 줄어든 비율의 평균을 보면 청양군의 읍면들은 1966년의 45.6%가 되었으며 부여군의 면들은 49.3%가 되었고 공주군의 면들은 48.8%로 예산군의 삽교읍의 포함 면들은 60%에 이르렀다. 예산군에서 주는 정도가 낮은 셈이다. 결국 24년간에 걸쳐 읍·면들이 절반으로 줄었다.

읍면간의 순위가 또한 바뀌었다. 상위에 속하는 읍아니 면들의 순위 및 하위순위 면은 바뀌어 적으나 가운데 순위면들에서 바뀌어 일어났다. 이를 통해 군안에서 보면 군 중심

지인 읍마저 줄어들고 읍면사이에도 틈이 많이 생겼으므로 군안 모둠살이 틈이 영성함을 알만하다. 모든 면이 날로 커져가는 쪽에서 순위가 오르내림이 아니라 줄어듬에서 오르내림이 크게 일어났다 함은 읍면수준 아래에서 모둠살이가 얼마나 어렸었음을 말해 준다.

행정구역의 넓이와 포섭이 보여준 모둠살이 틈과 사람사는 걸로 본 모둠살이들이 엇갈리 만큼 오늘의 모둠살이들은 헛깨비에 지나지 않다고 함직하다(표22,23,24,25 참조).

〈표 22〉 부여군 읍면별 인구변동 (1966-1990)

갈 래	1966년		1990년		감 소 율
부 여 군	194,995		116,898		
	인 구	순 위	인 구	순 위	59.9
부여읍	24,831	1	30,865	1	124.3(+)
규 암	22,200	2	13,150	2	54.7
은 산	16,019	3	7,519	3	46.9
임 천	14,115	4	7,389	4	52.3
장 암	13,210	5	5,847	7	44.2
세 도	13,176	6	7,034	5	53.3
홍 산	11,283	7	6,309	6	55.9
구 룡	10,935	8	5,149	10	45.7
양 화	10,084	9	4,458	13	44.2
남 면	9,982	10	4,612	12	46.2
석 성	9,686	11	5,223	9	53.9
초 촌	9,106	12	4,826	11	52.9
외 산	8,200	13	5,348	8	65.2
옥 산	7,615	14	3,113	15	40.8
충 화	7,344	15	2,768	16	37.6
내 산	7,186	16	3,288	14	45.7
-	23		-		(평균 49.3)

〈표 23〉 공주군 읍면별 인구변동 (1966-1990)

갈 래	1966년		1990년		감 소 율
	인 구	순 위	인 구	순 위	
공 주 군	202,635		158,030		77.9
공주읍	30,264	1	65,163(공주시)	1	215.3(+)
계 룡	21,090	2	10,764	3	51.0
우 성	18,973	3	9,972	4	52.5
탄 천	16,945	4	6,338	10	37.4
정 안	16,845	5	9,444	5	56.0
장 기	16,337	6	8,168	6	49.9
유 구	15,413	7	16,121	2	104.5(+)
사 곡	14,425	8	6,331	11	43.8
신 풍	14,370	9	6,514	9	45.3
이 인	14,065	10	6,729	7	47.8
의 당	12,209	11	5,848	12	47.8
반 포	11,689	13	6,638	8	56.7
	8				(평균 48.8%)

〈표 24〉 청양군 읍면별 인구변동 (1966-1990)

갈 래	1966년		1990년		감 소 율
	인 구	순 위	인 구	순 위	
청 양 군	105,211		53,744		51.0
청양읍	12,463	1	12,110	1	97.1
사 양	16,665	2	5,798	2	34.7(남양)
적 곡	10,962	3	5,149	3	46.9(장평)
정 산	10,924	4	5,678	4	51.9
비 봉	10,334	5	4,402	5	42.5
화 성	9,781	6	4,796	6	49.0
청 남	9,679	7	4,253	7	43.9
대 치	8,921	8	4,032	8	45.1
운 곡	8,827	9	4,325	9	48.9
목	6,649	10	3,201	10	48.1
	6				(평균 45.6%)

〈표 25〉 예산군 읍면별 인구변동 (1966-1990)

갈 래	1966년		1990년		감 소 율
	인 구	순 위	인 구	순 위	
예 산 군	176,202		128,727		73.0
예산읍	34,077	1	40,542	1	118.9
삽 교	23,625	2	18,384	2	77.8
고 덕	17,555	3	11,111	3	63.2
오 가	15,360	4	8,728	4	56.8
광 시	13,599	5	7,630	5	56.1
신 양	12,714	6	7,216	6	56.7
덕 산	12,569	7	8,708	7	69.2
신 암	12,481	8	8,257	8	66.1
봉 산	9,993	9	5,056	9	50.5
대 술	9,768	10	4,801	10	49.1
응 봉	7,472	11	4,250	11	56.8
대 흥	6,972	12	4,044	12	58.0
	17				(평균 60.0%)

백제권 자리매김하려 누리, 동아시아, 나라, 충남 등의 둘레를 살펴 본다.

Ⅳ. 백제권 자리뒀과 할 일

오늘 백제권의 세계자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따라 매겨지나 그나

1. 백제권 자리와 뒀

름의 자리와 몫을 찾아볼만 하다. 동아시아 역사속에서 백제의 자리에서 발미를 찾을만 하다. 역사를 거슬러 가면 동아시아에서 백제 자리는 우뚝했다. 백제는 중국과 일본에 까지 힘을 뻗었으며, 중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였다. 백제가 신라와 중국 당나라에 의해 없어지면서 역사자국마저 깎그리 사라져버림은 오히려 백제힘이 컸다는 반증이다. 백제힘을 다시 밝힘은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우리 나라 자리매김에 뜻이 깊다. 한편 백제가 신라문화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룬 점에서 백제와 신라 대립 모습은 오늘날 영호남의 지역정권 대립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틀지움이다. 그 속에서 한쪽 힘이 통일의 이름으로 다른 쪽을 지배하고 획일화 해 왔으며 다른 한 쪽 곧 백제의 것은 생각밖으로 내팽겨쳐 졌다. 같이 어울려 하나를 이름에도 힘셈쪽의 것만 늘 높게만 다룸은 좋은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힘과 가치가 어울려 융합을 통한 변증법적 지양의 통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뜻에서 신라에 대립된 백제의 가치를 되새겨봄직 하다.

벌써 일본이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되었다. 앞날 중국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큰 힘으로 떠오른다고 내다본다. 이런 판국에 앞서 커온 일본과 앞으로 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자리매김에 백제를 되새김은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른다. 앞으로 동아시아가 세계의 가온자리를 차지한다면 동아시아가 온자리인 우리나라의 자리몫이 새삼스럽고 그 속에서 백제역사는 값진 끝맺이 되리라

할 때 앞으로 백제권의 세계자리몫은 가볍지 않다. 어떤 뜻에서 가온 몫이 있음직 하다.

백제권의 서쪽과 북쪽은 중국이 커짐을 내다보며 서해안개발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다. 신산업지대로서 아산만 개발, 군장산업기지건설, 중국교역 전진기로서 서산·태안지역의 개발, 안면도 국제관광단지화, 항만 및 공항건설, 서해안 고속도로건설 등이 말한다.

동쪽으로 대전이 커진다. 수도권에 대항할 힘으로서 중부권을 키우고 그러자니 대전을 중추관리기능을 갖는 중심지로 키우려 한다. 더욱이 대덕연구단지로 대전은 정보 및 연구 기술 중심지로 클 바탕이 되었다.

남쪽은 전북지역이다. 전주-이리-군산의 도시화랑이 발달되었다. 현대 금강과 대둔산자락 및 도행정구역으로 갈라졌지만 국토계획에서 '백제문화권특정지역'의 지정된바와 같이 역사·전통·문화측면에서 같이 묶여진다. 백제됨을 되살리기 위해 서로 잇대어 살펴야 할 사이이다. 또한 공간적으로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 갈라지면서도 금강개발을 통해 사이가 깊어질 것이다.

이처럼 둘레를 보면 모두가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화 개발측면에서 씩씩하다. 허나 백제권은 공간적 자리는 충남의 가온이나 차령산맥 줄기와 금강줄기에 의해 백제권 자체가 갈라져 있고 개발이 빠른 경부축과도 멀고, 서해안과도 떨어져서 개발의 뒷쪽에 앉아 있는 꼴이 되었다.

이제 그것이 전화위복이다. 고을살림에서 환

경지속가능개발 및 문화의 상품화가 새로운 가치됨에 따라 백제문화 보전 때문에, 기존 개발축과 멀어서, 지형조건이 좋잖아서 개발이 더디어 오히려 자연이 보존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음이 새 살림의 바탕이 되고 있다. 앞서 발빠르게 개발된 둘레지역들이 겪는 후유증을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좋을 뿐 아니라 둘레 고을들이 경제 먼저, 공업화 먼저 하다 잃어버린 자연환경 및 사회분위기를 뒷전에서 도와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되니 앞으로 백제권은 뒷전이 아니다. 그간 개발전선으로 보면 뒷전이나 앞날 개발전선에서 보면 꺼꾸로되어 백제권은 개발복세통 사바의 한가운이 되어 이들을 잇고 거느릴 모습이다. 바뀌

말하면 백제권은 공간적 가운을 바탕으로 새날 곧 세계화와 지역화, 정보화와 절로됨,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연성, 무한경쟁사회에 대한 느슨한 문화의 소중함, 연구와 교육화의 중요성, 거룩함과 깨침을 바라는 나들이의 값어치 등으로 충남, 나라, 동아시아 나아가 누리에서 가운턱을 할만하다.

2. 고을자리와 뭇

1) 부여고을

부여군의 뭇을 동아시아의 백제문화 중심지 및 한겨레의 순례지로 잡는다. 이는 백제가 동아시아사에서 차지한 자리를 되새길 까닭이 크기 때문이며, 백제때 거룩한 세피(山)가 있었던 바 그것의 뜻을 되찾아 봄직하다. 백제가

비롯됨이 북 부여에서 왔고 백제의 힘이 중국과 일본에 까지 미쳤고 따라서 백제사람의 활동 둘레가 몽고, 중국, 일본에 걸친다면 이 너른 땅을 앞날에는 되새겨야 할 것이며, 이들을 다시 있는 것은 흩어진 한겨레를 묶어야 한다. 그 길 하나는 부여를 한겨레 및 동아시아의 순례길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자리 하나는 백제때의 거룩한 뭇이 됨직하다.

이런 앞날 자리매김은 고을의 세계화전략에서 문화의 상품화에 걸맞는다. 허나 백제의 되새김은 문화의 상품화 전략 그이상으로 우리나라 및 한겨레의 앞날을 꿈꾸는 데 뜻이 깊다. 또한 동아시아를 묶는 고리가 된다.

2) 공주고을

공주는 고려시대 뒤로 충청 또는 충남의 행정소재지였다. 역사적 중심지로 큰 뭇을 했다. 또한 일찌기 초등 및 중등교사를 키워온 곳이다. 사람키우기는 늘 값진 것이지만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생산능력이 있는 사람키우기가 큰일이다. 정보 생산능력키우기는 교육에서 참으로 벅찬 일이다. 그에 더해 힘들고 더욱 값진 일은 그런 사람을 키울 스승키우는 일이다. 그간 그 뭇을 공주의 터에서 해왔다. 제도교육은 일회에 그치지만 배움과 깨침은 사는 날 끊임없다. 정보화 사회에서 그런 필요가 더욱 커져서 재교육 또는 평생교육 제도들이 생겨난다. 그러니 스승들의 재교육은 더할 나위 없다. 그래서 공주에는 교육산실로서 더욱 스승을 키우는 터로서 자리매김직하다. 대

전의 정보 및 연구기술 중심활동과 연결하면 교육 및 스승의 재교육을 하는 좋은 터가 됨직하다.

공주에는 온천, 금강 그리고 계룡산이 있어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지 및 휴양지로서 좋다. 대전이 가까우니 근교농업을 키울 만 하다.

3) 청양고을

청양은 충남에서 지리적 가온이나 칠갑산 자락에 가려 골짜기가 되었다. 다른 고을은 개발이 일어나는 데 이곳은 개발이 더디었다. 그런사이 사람도 적게 살았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이 빠져나간 곳이 되었다.

청양은 아직까지 뽕죽한 수가 없어 쓰지않는 산을 많이 있다. 산다를줄 알게 되면 청양에 개발바람이 일것이다. 그동안 산다름은 산 땅속 광물캐기나 산위 푸나무를 쓰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나마도 산나무 가꿈에는 큰 득을 못보았다. 앞으로 연구해야 할 꺼리가 산다름이다. 산위 나무키우기와 다른 한편 산땅속 쓰기이다.

청양의 자리뫼을 찾는 하나는 충남도청 소재지로 삼기다. 충남에서 지리적 가온이란 점이 첫째 까닭이다. 다음으로 충남의 가온인데도 개발이 제일 안된 곳이란 점에서 키워야 할 평계가 있고 도청소재지만들이 개발벌미가 됨직하다. 도청소재지 만드는 개발과급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집적이익이 커져서 그 나름대로 중심지가 형성된 곳에 도청이전

이 쉽긴하나 이는 잘된 곳을 더 잘되게 하는 것이니 가만나두어도 서서히 잘되갈 것을 서둘러 키움으로 부작용을 크게할 것이며 한편 지역간 불균형을 키우게 된다. 끝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팽팽하게 살아야 하면서도 한편 이 팽팽함을 쓰다듬을 느슨함과 느긋함이 받쳐주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고을 다스림의 행정기능이다. 그런 기능도 담는 행정이 되고 그런 행정문화를 만들려면 이미 돛대기 장터된 기존 중심지로 도청이 갈 것이 아니라 아직도 고을삶이 느릿하고 더딘듯한 곳이 이런 행정문화퍼기에 좋을 성 싶다. 느슨한 문화를 펴며 환경지속 가능하며 인공적으로 아담한 도청소재지를 꿈꾸면 청양이 좋은 자리가 됨직 하다.

4) 예산고을

예산은 농사짓기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어 농업의 중심지로 커왔고 연구 및 교육기관들이 일찌기 섰다. 그런 점을 더욱 살려야 한다. 농업이 봉건사회에서는 으뜸(農者天下之大本)이었으나 자본주의속에서 상업과 공업보다 훨씬 처진 일이 되었다. 농사짓는 이들마저 기꺼이 농업을 하려하지 않게 되었다. 앞으로도 농업인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원통으로는 농업이 없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한편 농업인은 절대적으로 줄고 경제상 농업몹이 작아 질수록 오히려 농업이 사회적으로 값진 일이 된다. 곧 다시 농업이 사회 으뜸으로 생각할 때가 됨직하다. 그렇다면 예산고을은 농사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음으로 농업이 으뜸되는 일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떠맡을 곳으로 키울만 하다.

예산에 깔려있는 역사자국도 많다. 자연자원도 만만찮다. 그속에서 가려진채 빛나도록 할 것이 있는데 그하나가 비구니의 수덕사이다. 절은 관광지가 될 수도 있으나 관광지가 되면 자치 본래 바탕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주객전도요 개발의 모순이다. 그런 어리석음을 짓지 않되 고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있으니 수덕사가 비구니의 깨침 마당됨을 잘 살림직 하다.

하나 덧붙일 것은 임존성 복원이다. 임존성은 백제가 없어지자 다시 세우려는 싸움터다. 반항이란 지배자에게는 골치꺼리인 만큼 이런 반항흔적의 터를 보전해서 기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역사는 이김과 짐, 싸움과 풀림이 엇갈리며 지난다. 그것들을 다 뜻깊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긴자의 자리만 값진 것이 아니라 진자의 터도 역사에서는 한몫을 한다. 더욱 다시 일어나려고 한 얼과 녀은 겨레와 나라을 길게 잇길 생각한다면 값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자국이 잘 안떠지만 그러기에 더욱 옛자국을 찾아내고 다시 세우고 보고 할만하면 새로움을 더하고 나아가 뜻을 되새기며 비록 옛이지만 오히려 새삼스럽게 함이 오늘을 더욱 새롭게 함도 된다<표26 참조>.

3. 할 일

1) 공동추진전략

첫째 고을삶의 그릇이기도 하며 그래서 갖대기능도 하는 모듬살이들을 짜보아야 하는데 백제권 전체의 틀보다 각 시군안에서 모듬살이 틀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백제권 전체로는 오늘날 통합성을 갖는 모듬살이들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얻어질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뜻있다고 안보인다. 그대신에 각 시군이 그 나름대로 하나의 모듬살이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그틀로는 가온고을인 시읍과 마을이 바로 이어지게 짚다. 이를 마을-고을모듬살이 틀이다 이룸한다. 그들 사이에 있는 중간 중심지들로서 학교소재지 및 면소재지는 과도기적으로 보아야 한다.

마을과 중심고을이 막이어지는 틀을 전제로 하되 마을과 중심고을간의 교류가 마을수준이 낮아 어려운 만큼 행정 및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나아가 문화잔치들이 마을에 까지 도는 순회제도로 고을-마을 모듬살이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길내기로서 시군안에서 마을간, 면간을 잇는 순회도로 건설이다. 오늘 군내 모듬살이 틀에는 위계성만이 두두러진다. 중심지들간을 계층적으로 잇는 길만 나있고 동급 수준인 중심지간 연계가 잘 안되있다. 그럼으로써 시군안에서 도로망은 시나 읍을 가온으로 방사형태다. 이를 도을 도로망은 환상형 곧 순환도로다. 순환길은 둘레면간을 잇는 것이며 둘레 마을간을 잇는 것으로 수평연계를 높임으로써 군내 수직과 수평의 공간통합을 내다보려는 바다.

〈표 26〉 백제권 구상

갈 래	부 여	공 주	청 양	예 산
앞 날 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의 백제 문화중심지 · 한겨레의 순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지역의 교육중심지 · 스승의 재교육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도청소재지 · 느긋한 문화, 느슨한 사회의 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의 농업 연구중심지 · 여성의 순례지
까 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사에 백제의 몫 찾기 · 백제의 거룩한 세 뢰(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키우기 · 스승만들기 · 대전과 가까움 · 온천 · 뢰 · 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뢰와 나무 · 뢰속땅 쓸모 · 충남지리 중심 · 사람이 텅빈 너른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농자 천하지대본이 되다 · 비구니의 수덕사 임존성복원
접 근 방 법 1. 땅 필 기 2. 재 구 조 화 3. 재 산 업 화 4. 문화상품화	<p>-----</p> <p>-----</p> <p>-----</p> <p>→ 백제만들기</p>	<p>-----</p> <p>→ 재교육기능 -----</p> <p>-----</p> <p>→ 관광지만들기</p>	<p>→ 뢰 · 나무 쓸모</p> <p>-----</p> <p>→ 중추관리기능</p> <p>→ 지속가능개발</p>	<p>-----</p> <p>→ 농업연구기능</p> <p>-----</p> <p>→ 거룩함만들기</p>
공통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살이 틀세우기 →가온고을과 마을잇기 →복지 · 문화잔치 순회공급 · 사회간접자본 →면간 마을간 순환길 내기 · 고을의 교육, 연구 및 정보화 →마을 · 고을기록 →마을 · 고을연구기관 설립 · 부추기기 →글쓰기 및 문화 겨루기 · 나라힘쓰기 →중앙 · 지방정부 제몹 제대로 하기 			
군 별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 공주간 물길 · 땅길내기 · 백제때 세뢰성지화 · 백제유적 복원 · 백제연구기금 조성 및 기관설립 · 동아시아의 백제 찾기 잔치개최 · 백제마을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와 연계 백제 역사와 문화복원 · 교사의 교육 및 재교육 중심지화 활성화 · 국자 자격증관련 교육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도청 및 도단위 공공기관 새움 · 충남돌뎡대학 설립 · 산연구기금조성 및 기관설립 · 산문화잔치개최 (다른 고을 유명 산들과 순회개최) · 산속컴터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연구기금 조성 및 기관설립 · 농업교육기관 육성 · 임존성 복원 · 수덕사 여성순례지

셋째, 시군내에서 고을교육 및 연구 그를 바탕으로 고을정보화를 위한 기금조성 및 기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고을에 문화를 높이 사는 바람이 일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글읽기를 좋아하고 그를 바탕으로 글쓰기가 비롯되어 여러모양의 기록이 꾸준히 생기고 모아지고 두루 읽히도록 해야한다. 이 길이 고을연구의 소재를 마련하는 일이고 고을정보화에 바탕이다.

넷째, 고을살림에는 신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 바람은 밖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부는 것이지만 오늘 고을살림이 그렇지 못하다. 하여 밖에서 바람을 일으켜야한다. 곧 부추기는 여러가지 일을 벌려야한다. 부추기로 일을킬 분야는 문화를 높이는 일 특히 소비문화보다 지식생산문화 분야를 으뜸으로 해봄직하다.

한 보기로 마을(또는 면고을)신문 만들기, 마을지(誌)(또는 면고을) 만들기 등 글쓰기를 통해 정보기록 뿐 아니라 나아가 정보생산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다음으로 투자하거나 부추길 분야는 고을의 자원과 특성을 알고 맞는 일을 찾아내는 연구활동 분야이다. 연구란 자체가 생산하는 일일 뿐 아니라 이로하여 고을 쓸모 찾기로 고을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로 더욱 뜻깊음은 고을관심을 높여 고을 이루기의 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어서 기능개발, 자원 및 기술개발 등에 써봄직 하다.

2) 군별 추진전략

(1) 부여고을

부여를 백제 서율이였음과 백제때 하늘제사 지낸 거룩한 세피(山)있음을 빌미로 백제역사 및 문화연구 중심지로 키울 뿐 아니라 순례지로 삼아야 한다. 첫째, 백제 세피를 성지화 하고 백제마을을 짓는다. 둘째, 백제 연구기금조성 및 기관을 세운다. 셋째, 이런 물적 바탕으로 동아시아권내 백제순례잔치를 펼친다.

(2) 공주고을

공주의 역사중심지 및 교육도시 더욱 교사 교육 중심지를 새삼스럽게 키운다. 첫째, 부여-공주를 잇는 물길(금강-백마강) 과 땅길(강변길)을 백제역사와 문화복원 차원에서 새로 튼다. 둘째, 교사의 재교육 제도 및 시설을 마련한다. 셋째, 아울러 국가자격증 관련 교육장으로 키운다. 그간 국가자격증은 단순한 기능적 자격증이였다. 앞으로 지식생산능력이 소중한 때가 되는 만큼 자격증부여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그런만큼 대전과 가까움으로 자격증 관련 교육을 담당함으로서 교육기능에 더욱 특화하도록 한다.

(3) 청양고을

충남에서 지리적 가온이여서 가장 처지고 깊은 고을이 됨을 살려 말 그대로 발빠르게 크고 있는 둘레 고을들을 뒤에서, 가온에서 추수리는 고을로 탈바꿈하도록 한다. 첫째, 충남도청 소재지로 삼는다. 둘째, 충남도립대학을 세운다. 셋째, 산을 연구하는 기금을 마련하며 연구기관을 세운다.

넷째, 산을 이용한 산 쉼터마을 등 쉼과 휴

양의 삶터를 마련하다. 다섯째, 다른 고을과 연대하여 우리 나라 이름난 산들을 잇는 퇴잔치를 펴서 산문화, 산림문화를 키운다.

(4) 예산고을

산과 너른 들 그리고 호수가 어울려 우리 나라 시골멋을 잘 갖춘 곳답게 농업을 살려 충남 뿐 아니라 나라안에서도 값진 곳으로 키워야 한다. 첫째, 농업연구 및 농업인 키우는 산실로 만든다. 연구기금 조성 및 연구기관을 설립한다. 둘째, 임존성을 복원하여 백제얼과 넋을 높인다. 셋째, 비구니의 수덕사를 여성 순례지로서 가꾼다.

V. 생각거리

1. 충남 4대 권역설정

충남 4대 권역설정은 두가지 꺼리가 있다. 하나는 나눈 뜻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다. 충남을 개발권역으로 4개로 나누었으나, 각 권역이 붙여진 이름에 맞는 개발권역인지 믿답잖다.

각 권역나눔과 이름이 앞으로 개발뒤에 이를 공간모습같지도 않고, 개발방향이나 개발수단도 아니란 생각이 든다. 그 까닭은 4개권역별 개발주체가 없으며, 권역이 어떤 통합된 개발단위로 기능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4개권역의 나눔없이 행정단위인 군 내지 통합시 또는 시·군별을 단위로 다루는 바가 마땅할 것 같다. 군 또는 시군의 단위가 역

사성도 있고 지방자치단위이며 더욱 고을간 다름이 그래도 뚜렷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때로 어느 시나 군들사이에는 비슷하거나 같이 묶어 하나의 개발단위로 할 것은 있다.

그리고 이처럼 4개 권역나눔이 배타적으로 묶고 그것을 통합된 개발단위로 하는 것은 억지다. 기능과 사업에 따라 개발권역이 중첩되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럴 때 계획수립의 공간단위를 시·군만이 아닌 면내지 마을로 잡고 계획을 세우게 되길 바란다.

다음으로 권역이름이다. 두개 권역(북부권, 서해안권)은 방위에 붙이고 하나(백제권)는 기능에 붙이고, 하나(금강권)는 자연지형 내지 개발자원에 붙였다고 본다.

이름붙임에 같은 잣대솜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백제권 이름은 기능에 따라 붙인 이름으로 고을들의 특성을 잘 잡았다고 함직하나 걸리는 것은 4개군을 백제권 하기에는 백제의 공간범위가 훨씬 컸다. 벌써 국토계획에서 충청도와 전북일대를 ‘백제문화권’으로 잡았다. 옛 백제때의 땅은 더 넓다. 나아가 백제의 활동무대는 더 넓다. 그런 백제를 생각하면 4개군을 묶은 공간에 백제의 이름붙여주긴 백제란 이름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 굳이 백제의 이름을 넣고 싶으면 국토계획에서 ‘백제문화권’하듯 4개군이 백제에서의 차지할 몫이나 맡을 어떤 기능을 붙여 ‘백제… 권’으로 함이 좋을 성 싶다.

2 나라 힘쓰기- 중앙·지방정부 제몫하기

못산 고을과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땅에도 나라는 잘하지 않는다. 지역간 불균형을 잘다스리지 못한다. 나라 그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 정권을 잡은 집단이 다시 잡기위에 지역편향적 개발정책을 편 탓이다. 말은 나라위하고 써알위한다고는 하나 속은 그리하지 않다. 지역간 불균형은 자본의 탓도 크다. 그래 우리나라 사회됨을 인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라 하듯 나라탓이 참으로 크다. 정권이 나라를 잡고 지역불균형을 다스리지 못하니 지역정권이란 말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게된 제도라 선거에 유리한 지역에 우선 배려하다보니 지역불균형은 끊이지 않고 틀박히기에 이르렀다. 못사는 고을은 못살게 된 틀을 바꿔주길 나라에 기대하나 나라권력을 잡은 정권집단은 고쳐주질 않았다.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과 달리 고을삶의 어려움과 고을간 불평등은 나라잡는 정권이 그리 만들었기에 오늘 나라가 나서야 한다고 소리친다. **한글학회**

참 고 문 헌

- 건설부, 중부권 종합개발계획조사-종합계획부문 자료집, 1986. 12.
- 경제기획원, 인구센서스보고, 1966-1990.
- 국토개발원, 중부권 정주생활권체계 연구, 1986.
- 권태준·김광웅, 한국의 지역사회개발, 법문사, 1981.
- 박서호, “공주개발의 전망과 방향(1),” 한남대 사회과학편 논문집 19, 1989.
- , “큰 학분은 학문의 학이다:변증법적 격물론,” 한남대사회과학편 논문집 21, 1989.
- 중도일보사, 중도보감, 충남보감편찬회, 중도일보사, 1967.
- 최문희, 충남토속지명사전, 민음사, 1988.
- 충청남도, 4대권역별 개발경영사업 연구(중간보고서), 1996. 5.
- , 백제의 역사, 1995.
- , 뿌리깊은나무, 1983.
- , 충남통계연보, 1962-199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산업구조 개편방향, 1995. 2.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충남편(상·하), 1974.